

광주·전남 지자체 코로나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여수·순천·영암·해남 등 10만~25만원 지급
못 받는 타 지자체 주민들 “우리는 왜 안주나”

광주·전남지역 일선 자치단체가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보편적지원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재정 여건이 여유치 않은 지자체는 계획조차 없기 때문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 여수시, 영암군, 해남군 등 4개 자치단체가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시와 고흥군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순천시민으로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 소요액은 285억원 규모로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예산 등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했다.

여수시도 시민 1인당 25만원씩 총 72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지급하고 있고, 영암군도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

획이다.

이에 동일 생활권인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완도군민 신모(54·여)씨는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의 경우 4인 가구에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완도군민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같은 전남도민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다. 혜택을 받는 여수시민과 순천시민이 그저 부러운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 “재정적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는 곧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옹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방역망 구축 차원에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시와 5개 자치구, 의회와 논의해서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자체 보완론’을 거론했다.

/정겨울·임후성기자

전남도, 359억 들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2곳 37ha 규모…年 미세먼지 6.2t 저감 기대

전남도가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 차단 및 폐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로 전국 최대인 350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노후산단과 폐기물처리장, 생활권 주요 도로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남도의 올해 사업비는 총 350억원으로 지난해 150억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됐으며 올해 전국 예산 1천471억원 중 가장 많은 24%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은 도내 12개소 37ha 규모로 추진되며 시·군별로 ▲목포 옥암수변지역(2

ha) ▲여수 옛전라선 폐철도 등(7ha) ▲순천 울촌산단 등(7ha) ▲광양 폐철도 등(7ha) ▲곡성 겸면 농공단지(3ha) ▲보성 폐국도(2ha) 등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화순 화순천(1ha) ▲강진 쓰레기매립장(1ha) ▲영암 대불산단(1ha) ▲무안 남약신도시(2ha) ▲함평 축산농공단지(1ha) ▲신안 자은 쓰레기소각장(3ha) 등에서도 사업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수종선정과 식재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상지들의 사전설계를 마쳤으며 오는 2월 착공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특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후박, 아왜나무, 홍가시 등 상록활엽수와 함께 경관적으로 우수한 수종이 설계에 반영돼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숲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37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면 연간 6.2t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과 도민 녹색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 조성하겠다”며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산림청 국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부동산 거래 상담소 운영

광주시는 올해에도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19일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 급등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동요가 많았던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이나 불이익 사례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6시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운영된다.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2-613-5658)로 상담이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법률, 거래시유의사항, 분쟁 시 대처 방법 등의 서비스를 상세하게 받을 수 있다.

/정진탄기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내달 1일까지 모집

20개 법인·단체…2천만원씩 기반 구축비 지원

전남도는 19일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전남도가 예비마을 기업을 선정해 행안부에서 관리 중인 ‘행안부형 마을기업’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책사업이다.

사업은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준비 중인 도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월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가능한 조직 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과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이다.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와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단, 청년이 주축인 마

을기업의 경우 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돼야 한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자산취득비 등 2천만원 안팎의 기반 구축비를 지원받게 되며 판로·경영 컨설팅도 지원받게 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지원액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재 278개의 마을기업을 운영 중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전국 마을기업의 10.5%를 점유해 11.7%인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19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비대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배, 복숭아 등 지역 내 과수 재배농민들에게 교재를 드라이트 브루 방식으로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지사 “농업인에 도움될 다양한 정책 펴겠다”

비대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나주 현장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비대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배, 복숭아 등 지역 내 과수 재배농가 30명을 대상으로 가진 비대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올해 교육은 지난 6일 광양시를 시작으로 3월31일까지 21개 시·군 172개소에서 전남지역 농업인 2만2천3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방식 집합교육이 불가능해 네이버 밴드, 줌,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녹화영상, 한국농업방송 등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추진된다.

이날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과수 저온피해 방지대책 및 재배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영농기술과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 3개 분야로 편성돼 스마트팜, 고품질 전남쌀 안정생산 등 품목별 신기술 교육

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저탄소 농업기술, 가축질병 예방, 과수화상병 예방방제요령 등 농정시책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책자를 제작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이상 저온과 코로나로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컸으나 저온 피해 방지 대책, 재배 기술 등 도가 실시한 교육을 통해 과수 재배농가들이 도움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스포츠로 하나되는 아시아

KOREA, BEYOND MEETINGS

WWW.KOREACONVENTION.ORG

스포츠 MICE 도시 광주

사전 참가 신청 이벤트

사전 참가 신청자 선착순 400명에게 선물 지급!

네이버 포인트 천원권을 드립니다.

- 사전 참가신청 및 이벤트 기간 2021. 1. 15. ~ 1. 25
- 온라인 중계 2021. 1. 27. 14:00 ~ 17:30

▲사전 참가신청 GO▲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관광공사

한국PCO협회

Public Relations & Consulting HUB

후원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관광재단